

도재전장구조관의 심미성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정 현 영 교수

인공치에 심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좌우 치아의 대칭성과 전면에서 보이는 부분의 비율을 고려하여 치아의 형태를 만들어야한다.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려면 우선 형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공치표면의 거칠기나 색조도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잘 만들어진 인공치라도 구강내의 위치가 잘못되면 심미성이 떨어지게되므로 이러한 모든요소를 고려해서 보철물을 제작할 때 심미적인 보철물이 탄생되는 것이다.

도재전장관에서는 이러한 요소외에도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은연부위의 변색이나 그림자 현상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며, 색조의 선택이나 stain 과정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ALL CERAMIC RESTORATION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우 이 형 교수

치과 치료 목적중의 하나는 심미성의 개선이며 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은 도재와 레진이 있으나 레진은 물리적인 문제점등으로 인하여 현재 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도재이며 특히 금속-도재 수복물이 심미치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수복물은 도재와 금속의 결합 문제, 비귀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혹 생체 친화성에 관한 문제와 치은부의 변색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금속-도재 수복물의 가장 큰 단점은 금속에 의하여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자연치와 같은 색조를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치과의사와 기공사의 상호 정보 교환의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색조 및 FRAMEWORK 설계에 의한 도재의 파절과 구조물의 변형등에 의한 지대치의 이차 우식도 자주 볼 수있다.

이런 금속-도재 수복물의 단점인 금속 사용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으며 특히 백금박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부터 OPTEC, CERESTORE, DICOR, EMPRESS, HI-CERAM, IN-CERAM등의 여러 완전 도재 수복물이 개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재료는 변연 적합도가 불량하거나 제작 방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특히 강도가 부적절하여 파절등의 문제가 있다.

DR. McLEAN은 완전 도재 BRIDGE를 위하여는 300MPa 이상의 굴절 강도를 가진 재료만이 저작력에 견딜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재료는 IN-CERAM 뿐이다.

본인은 본 강연을 통하여 가장 최근에 개발된 완전 도재 수복물인 IN-CERAM을 위한 치아 형성 및 모형 제작, SLIP POWDER의 도포등의 전반적인 임상 및 기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CROWN, BRIDGE와 RESIN BONDED RETAINER등의 임상 중재들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적응증, 금기증 및 장단점등을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